



질병관리청



2023. 5. 8. 1/9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온열질환은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에 따른 온열질환자 증가로 예상됩니다.

2023. 5. 8. 2/9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매년 온열질환자 지속 발생

연도	온열질환자(명)	폭염일수(일)
2010	6.5	14
2011	9.6	16.4
2012	6.6	13.8
2013	12.8	9.6
2014	10.1	22
2015	13.7	13.5
2016	18.2	31
2017	13.7	15.9
2018	18.1	12.9
2019	12.7	7.7
2020	12.7	11.8
2021	13.7	10.6
2022	15.6	-

2023. 5. 8. 3/9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발진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추정 사망은 대부분 열사병입니다.

2023. 5. 8. 4/9

폭염 시 야외작업 자제! 낮 12시~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3~2022년) 온열질환 증례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45.8%는 실외 작업장과 논밭에서 발생하였고, 53.1%는 낮 시간에 증상 발생

2023. 5. 8. 5/9

80세 이상 고령층은 특히 주의 필요!

연령대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수
0-9세	0.1
10-19세	0.9
20-29세	2.6
30-39세	2.7
40-49세	3.0
50-59세	4.0
60-69세	3.8
70-79세	4.3
80세 이상	6.4

2023. 5. 8. 6/9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거나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 5. 8. 7/9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의식이 없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이동	119 구급대 요청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시원한 장소로 이동
수분 섭취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병원으로 후송

2023. 5. 8. 8/9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1. 시원하게 지내기
 - 샤워 자주하기
 -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입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등)
2.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자주 마시기
 - * 신장질환자는 익사와 상당 후 성취
3.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기
 - *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즐길 때 조절하기

2023. 5. 8. 9/9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 준비하세요!

온열질환은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온열질환자 증가로 예상됩니다.

(자료출처: 질병관리청)